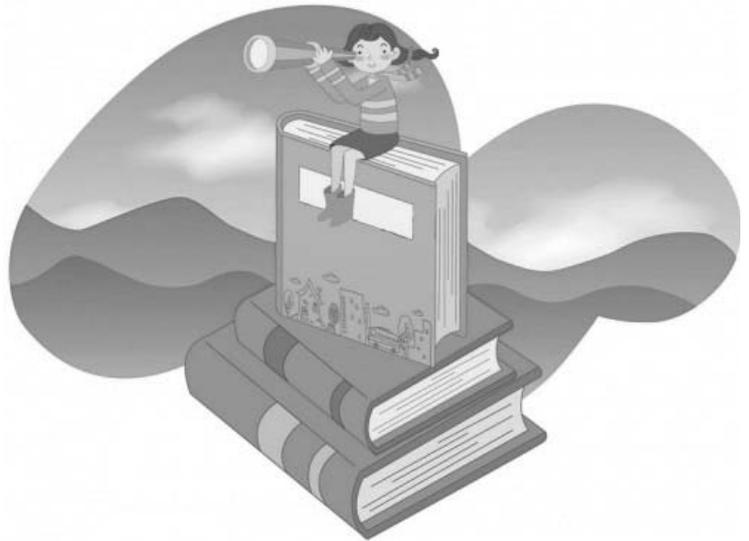


일본소설 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도서대출 순위는 세간의 화제가 되곤 한다. 그럴 때마다 대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빌려 읽은 책으로 칭찬을 듣기보다는 낮은 수준의 책읽기가 입길에 오른다. 대학도서관 도서대출 순위 상위권이 베스트셀러 일색이어도 문제고, 무협지와 판타지소설로 채워져도 비난을 듣는다. 이번엔 그나마 비판의 강도가 덜하다. 대학도서관을 통해 대학생들이 일본소설을 즐겨 읽는 현실을 어느 정도 수긍하는 것 같다. 다만, 국내작가의 대하소설을 외면하는 대학생들의 독서취향에 비판의 화살을 겨눈다.



최 성 일
출판평론가
robli@freechal.com

일본소설 > 대하소설

〈연합뉴스〉는 지난해 성탄절, 서울에 있는 대학 13곳의 2006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앙도서관 도서대출 순위(한 대학은 구내서점 판매순위) 베스트 10을 대학당국의 협조를 얻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소설의 약진이 두드러졌고 대하소설이나 최근 인기가 높았던 판타지소설은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대에선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의사와 환자들이 벌이는 요절복통 사건을 그린” 오쿠다 히데오의 『공중그네』가 4위에 오른 것을 필두로, 요시모토 바나나의 『키친』(6위), 에쿠니 가오리의 『울 준비는 되어있다』(8위)와 『반짝반짝 빛나는』(9위) 등 네 권이 도서대출 순위 10위 안에 들었다. 또 하나의 1대 역시 일본소설 네 권을 도서대출 순위 상위권에 올려놓았다. 츠지 히토나리의 『냉정과 열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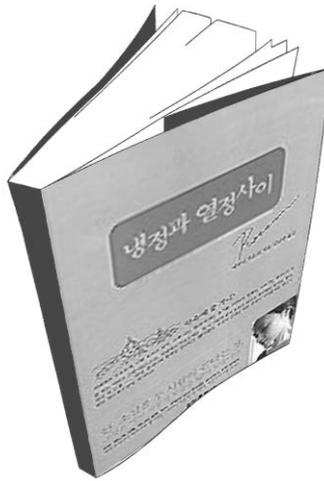
이 Blue』(5위), 요시모토 바나나의 『키친』(6위), 에쿠니 가오리의 『냉정과 열정 사이 Rosso』(8위)와 『낙하하는 저녁』(9위)이 그것으로 앞의 7대학과 순위도 비슷하다. 또 다른 7대와 8대는 3권씩, 또 하나의 8대와 8대는 2권씩 도서대출 10위 안에 일본소설이 포진하고 있다.

한편, 중앙도서관 대출순위 10위 안에 일본소설이 한 권도 없는 대학은 8대 또 다른

8대 두 곳뿐이었다. 재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일본소설을 덜 빌려본 이 두 대학과 앞서 맨 먼저 거론한 7대학의 종합순위 10위 안에는 국내작가의 대하소설이 한 권씩 들어있다. 이런 실태에 대해 대학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요즘 대학생들은 신선한 소재와 감각적인 문체를 무기로 내세운 일본소설에 큰 흥미를 느끼는 반면, 상대적으로 호흡이 긴 대하소설에서는 예전 대학생들처럼 매력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데 나는 대하소설을 읽지 않는 세태를 그리 나쁘지 않게 본다. 에세이스트 고종석의 표현을 빌리면, 『토지』 『장길산』 『태백산맥』을 안 읽어도 괜찮다는 사람이 한들쯤 있어도 좋지 않겠는가. 아니, 그런 사람이 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10권짜리 대하소설은 홍명희의 『임궏정』을 읽는 것으로 충분하다.

출판통계와 서점에서의 판매실적 또한 일본소설의 약진을 뒷받침한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40종 안팎을 유지한 일본문학 도서의



출간종수는 2005년 485종, 2006년 580종으로 부쩍 늘었다. 문학성에 주목하는 아쿠다가와 상과 대중성을 높이 사는 나오키 상의 최근 수상작은 어지간하면 다 번역된 것 같다. 선인세의 상승폭은 더욱 가파르다. 한두 해 사이 다섯 배 이상 올라 선인세로 7천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일본소설의 번역출간과 선인세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우리 독자들의 호응 덕분이다.

2007년 1월 12일에서 18일까지 일주일간 인터넷서점 예스24의 문학베스트 200 안에 든 일본문학은 57권에 이른다.

이유

시사주간지 <한겨레21>(제645호, 2007.1.30)의 표지이야기 ‘일본소설 날다날다(플라이 일본소설 플라이)’를 통해 문학평론가 강유정은 일본소설이 우리 독자들에게 어필하는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한다.

1. 뻔하지 않은 멜로 - 뻔하디뻔한 멜로적 관습을 새롭게 갱신하고 있다.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은 장애를 지닌 여성과 남자의 사랑이라는 점에서 그 소재가 신선하고, 『도쿄 타워』는 연상의 유부녀가 친구 아들과 사랑을 나눈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다.”

2. 일탈 그리고 은밀한 쾌감 -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작중인물의 행동을 담담하게 묘사하여 아웃사이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이끈다. 이것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소설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일본소설 특유의 질감

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자로 읽고 상상하는 일탈적 세계는 범속한 일상의 억압 아래 놓여 있는 독자들에게 은밀한 쾌감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3. 세상에 관심 없는 나는 외톨이 - 일본소설은 대체로 독특한 인간형을 주인공으로 설정한다. 재일동포 2세, 외톨이 소녀, 날카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의사, 선천적 장애인이 그들로 결코 평범하다 할 수는 없다. 또한 거시담론과 담을 쌓고 지내는 이들의 탈강박적인 가벼움은 독자에게 매력으로 비친다.

4. 가구나 요리 기구 같은 가족 - “한국의 드라마나 소설에서 가족은 억압의 중심이자 갈등의 근간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본소설에는 정상가족에 대한 강박이 없다. 일본소설을 주로 읽는 국내 독자층이 2, 30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요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5. 문체, 일본식 도시락처럼 - “많은 독자들은 일본소설의 특징점으로 감각적이고 선명한 문체를 꼽는다.” 그리고 “일본소설의 문장은 단문일 경우가 많다.” 탈강박적인 주제는 짧고 감각적인 문장을 통해 세련된 무관심을 낳는다. 여가선용을 위한 읽을거리로 딱이다.

내가 읽어보니

나는 우리소설에 없는 독특한 분위기를 일본소설의 강점으로 꼽고 싶다. 적어도 내가 읽은 느낌은 그렇다. 일본소설로는 처음 접한 시마다 마사히코의 장편소설 『드림메신저』(서계인 옮김, 미학사, 1993)부터 그랬다. 대학을 졸업하고 백수로 지내던 시절, 시마다 마사히코의 장편소설을 공공도서관에서 빌려봤

는데 아마도 제목에 끌렸던 같다. 꽤 두툽한 책이었지만 쉽게 읽혔다.

독후감은 예상외로 그리 나쁘지 않았다. 소설의 초반부는 상당히 흥미롭고 독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너무 상식적으로 풀리는 듯한 소설의 전개는 아쉬웠다. 1990년대 전반기에는 이미 무라카미 하루키는 말할 것도 없이 사기자와 메구무나 마루야마 겐지 같은 일본작가들이 젊은 우리작가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기에 시마다 마사히코도 가세하리라는 느낌이 들었다.

국내작가들이 시마다 마사히코의 포스트모던한 작품(作風)을 어떤 식으로 수용했는지 살펴볼 기회는 없었지만 그것을 시도한 작가조차 흔치 않았을 성싶다. 시마다 마사히코를 창작의 밑거름 삼은 작가가 극복하기 어려운 높은 벽이 우리사회에 엄존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시마다 마사히코가 아직도 낯선 작가로 남아있는 이유는 그의 소설이 파격적인 때문만은 아니다. 나는 십여 년 전 실험성 짙은 『드림메신저』에서 진정성을 읽었다.

여성작가 에쿠니 가오리와 유모토 가즈미는 일본소설의 다양한 진폭을 보여준다. 에쿠니 가오리의 『낙하하는 저녁』(김난주 옮김, 소담출판사, 2003)은 비 개인 날의 투명한 수채화다. 실연(失戀)을 이처럼 칙칙하지 않게 그린 우리소설을, 과문한 탓도 있겠지만, 나는 좀체 못 봤다. 유모토 가즈미의 『여름이 준 선물』(이선희 옮김, 푸른숲, 1996)은 매우 감동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작품이 주는 것과 감동을 국내작가에게서 기대하기 어렵다. 외로움에 익숙한 노인과 사랑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열세 살 무렵의 아이들이 우정을 쌓는 일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까닭이다.



우리에게 이런 정서와 분위기가 있지 않다.

요시다 슈이치의 소설은 분위기가 다소 야릇하다. 『일요일들』(오유리 옮김, 북스토리, 2005)과 『거짓말의 거짓말』(민경옥 옮김, media2.0, 2006)의 배경은 동성애 코드가 흐릿하게 깔려 있다. 어찌 보면 ‘뭐, 이 정도 갖고서’라고 할 정도의 가벼운 배경묘사에 그치나, 국내작가는 이만한 표현을 하면서도 부담을 가질 것이다.

그가 교수를 겸하거나 그에게 본격작가의 꼬리표가 붙었다면 더 그러하리라. 이와 관련하여 세계닷컴(www.segye.com)에서 우리 드라마의 발전을 가로막는 다섯 장벽의 하나로 꼽은 “머느리도 모르는 심의기준”은 드라마만의 장벽이 아니다.

“시청자들은 한국드라마도 미국드라마처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사실 미국 드라마의 소재 중 한국에서 방영 가능한 것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치아를 뽑고 거꾸로 매달아 놓는 등의 고문이 자행되는 <앨리어스>, 주인공의 발가락이 잘려나가는 <프리즌 브레이크>가 한국드라마였다면 방송될 수 있었을까. 매화 성적 농담이 오가는 <프렌즈>나 하루가 멀다 하고 바람을 피우고 살인을 일삼는 <위기의 주부들>도 ‘한국버전’이었다면 언감생심이다.”

(<http://news.media.daum.net/entertainment/broadcast/200703/05/segye/v15931002.html>)



반사이익

그렇다고 일본소설의 번역 출간과 독서 붐에서 국내작가들이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하긴 어렵다. 일본소설이 뜨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우리소설이 침체에 빠져 있어서다. 강한 사회성을 앞세워 일본소설의 사소설(私小說)적 경향을 압박한 예전과는 사정이 크게 다르다. 요즘 우리소설은 이도저도 아닌 것 같다.

한 시대를 풍미한 작가들의 정치적 행보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나는 소설가 이문열의 정치적 견해는 동의하지 않지만, 작년 말 펴낸 장편소설 『호모 엑세쿠탄스』(민음사)에 대해 그가 토로한 고충은 충분히 이해한다. 안타깝기 짝이 없다. “책을 내고 한 달이 지나도록 서평이 전혀 안보였다. 내가 문학적으로 또 다른 출발을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사고를 쳤구나 하고 울었다.”(〈경향신문〉 2007년 2월 27일자)

나는 구독하고 있는 <한겨레> 신문에 올해 초부터 연재 중인 황석영의 「바리데기」를 거들떠도 안 보고 있다. 신문 연재소설의 소재가 되는 탈북자 문제에 관심이 적은 탓도 있지만, 작가의 정치적 발언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대가들이 늙어가면서 글 쓰는 행위를 무슨 하늘이 내려준 형벌처럼 엄살을 떨고 과장하는데 구토를 느낀다”는 그의 발언은 공감한다. 하지만 특정 정치인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그의 중도정치론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외려 1억원 고료 문학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등단한 늦깎이 신인작가의, 일본소설에 독자를 빼앗긴 한국소설의 위기를 '재미' 로써 돌파해보겠다는, 씩씩함이 기대를 갖게 한다. 그렇지만 신중하련다. "지금의 우리소설은 너무 무겁고 재미가 없어서 독자들이 외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문학은 너무 '작가 중심' 인 것 같아요." 옳은 지적이다. "저부터가 재미없는 소설은 보게 되질 않습니다. 예술영화도 안 보는데요, 뭘." 배타적인 문화 취향이 어찌 좀 수상하다. "독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재미있는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한겨레〉 2007년 2월 28일자) 재미있는 소설을 쓰겠다는 뜻은 알겠는데 독자들과 함께 호흡한다는 건 도대체 뭘 말? 까당, 어쿠, 글썸.

제3의 웨이브와 기획창작

〈한겨레21〉 일본소설 특집의 표제는 '제3의 니혼 뉴웨이브' 다. 일본소설의 파도는 1989년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유유정 옮김, 문학사상사)가 번역되면서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 파고는 처음부터 꽤 높아서 『상실의 시대』는 한국어판 출간 첫해에만 30만부가 나갔다. 지금도 여전히 온오프라인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들어있는 꾸준히 잘 팔리는 책이다.

제2의 니혼 웨이브는 요시모토 바나나의 『키친』(김난주 옮김, 민음사)이 번역된 1999년을 기점으로 한다. 『키친』 역시 그해에만 30부가 팔렸고 스테디셀러로서 베스트셀러 목록에 건재하다. 일본소설의 '제3의 물결' 은 2006년 시작되었다. "3차 물결은 여성소설에서 벗어난 가벼운 터치의 소설로 시작해 장르소설로 확대돼가고 있다." 〈한겨레21〉 일본소설 특집에 실린 일본 월간 문학잡지 편집장과의

인터뷰는 우리와 일본의 문학출판시스템이 아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편집자에게 단순히 작품을 넘겨 소설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제일 처음 거치는 것이 편집자와의 '사전회의' 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자' 하는 회의를 서로 아이디어를 내면서 진전시킨다.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영화 기획과 같을 수는 있으나, 사전에 모두 짜놓고 감독 찾듯 작가를 찾거나 하는 일은 없다."

이제야 잘 나가는 일본소설들에서 세련된 공산품 냄새가 나는지 좀 알겠다. 작가와 편집자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고는 하나, 우리가 보기엔 '기획출판' 의 부정적인 측면이 훑아터질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게다가 우리출판과 독자에게 일본소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소설의 발전 가능성을 말해준다고 해석할 수 있" 다거나 한국의 젊은 작가들을 자극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일본 문학지 편집장의 진단은 엉뚱하다. 한국소설과 일본소설은 발전경로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반성과 참회를 모르는 일본의 남루한 역사의식은 국내의 일본소설 편집자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으로 작용한다. (㉞)